"풍력단지 개발·사계절 축제 정착 등 현안 차질없이 진행"

명현관 해남군수 민선 8기 1주년 간담회

5년 연속 1조원 군단위 최대 예산…지난해 하반기 재정집행 시군 1위
친환경농수산물 생산기반 구축·청년 공공임대주택·장학사업 등 추진

"해남형 ESG 경영을 완성하겠습니다."

명현관 해남군수가 민선8기 1주년 언론인 간담회를 갖고 "깨끗하고 유능한 군정, ESG 경영을 완성해 해남발전의 백년대계를 세우겠다"고 밝혔다.

해남군은 지난 27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지난 1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향후 군정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명 군수는 "민선8기 1년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해남이 하면 대한민국 시작이 되고 기준이 된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대외적인 위상이 높아졌다"고 자평했다.

해남군은 민선8기 출범이후 매니페스토 공약이행 평가 최우수(SA) 5년 연속 달성, 전남 도내 유일 5년연속 청렴도 2등급 달성에 이어 재정집행 평가 전국 1위 등 각종 평가 지수에서 최상위권을 지켰다.

특히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ESG 경영을 군정에 도입해 '해남형 ESG 윤리경영'을 민선8기 군정의 주요 운영 방침으로 설정했다.

청정해남(E), 함께하는 안전사회(S), 신뢰행정 구축(G)을 목표로 지속가능한 군정 발전의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해남군은 2019년 이래 5년연속 1조원 이상 전국 군단위 최대 예산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2022년 하반기 재정집행 평가에서는 전국 시군 자치단체 중 1위를 차지했다.

올해 국도비 예산으로 역대 최대 3414억원을 확보하면서 국립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 설립과 어란진 국가어항 확장사업, 김치원료공급단지 조성, 탄소중립 에듀센터 건립 등 대규모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탄력이 되고 있다.

누적판매액 5000억원을 돌파하며 전국 군단위 최대 발행 판매 기록을 세우고 있는 해남사랑상품권과 해남매일시장 재개장 등 전통시장 활성화, 해남미소와 로컬푸드 판매 확대 등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도 성과로 제시됐다.

특히 재생에너지 산단과 발전단지 구축과 함께 투자유치가 잇따르고 있는 솔라시도 기업도시, 화원산단 풍력발전 배후단지 개발 등 지역의 미래를 바꿀만한 대규모 사업들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해남군은 민선8기 2년차를 맞아 경영행정을 통해 현안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사계절 축제 정착과 함께 어린이 공룡과학체험관 개관과 땅끝꿈길랜드 조성, 우수영 유스호스텔 리모델링, 두륜산 생태힐링파크 조성, 목포구 등대 관광자원화 사업, 복합뮤지엄파크 건설 등 문화관광분야의 주요 사업들을 역점 추진할 계획이다.

기후변화대응 저탄소 친환경 농수산물 생산기반 구축과 전국 최초 농업인 기숙사 건립, 수산 기자재 특화단지 조성 등 지속가능한 농어업 발전분야도 중점 시행된다.

땅끝가족어울림센터, 해남교육재단 설립, 인구감소 대응 전략사업으로 청년 공공임대주택건립, 작은학교 살리기 선진모델 구축사업과 장학사업 장학사업기금 500억원 조성 등 살기좋은 해남만들기를 위한 기반 사업도 착실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으뜸해남을 향한 꿈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시기인 만큼 군민들이 군정의 성과를 피부로 체감하고, 주요 현안 사업들을 누수없이 완료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완도 해산물 맛·영양 만점 이유 있었네

해수·해산물 영양학적 관계
군, 연구 용역 결과 보고회
갯벌·암석 영향 영양분 풍부

완도 해산물이 맛있는 이유는 뭘까.

완도군은 완도 해산물의 우수성은 해저 맥반석 기반암, 갯벌, 해수 성분의 영향으로 비롯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28일 밝혔다.

군은 해양환경과 해산물의 영양학적 관계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연구 용역을 했다.

최근 열린 '완도 지역 해수 성분과 해산물의 영양학적 관계'에 대한 최종 보고회에서 순천대학교 김정빈 교수와 전남대학교 김태훈 교수가 완도 지역 연안 해수의 화학적 성분(유기탄소, 용존 무기영양염, 미량원소)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김태훈 교수는 완도의 해산물 양식장 주변 해수를 대상으로 계절별(총 4회) 영양염류와 미량금속 성분을 조사했다.

완도 바다속 해조류

조사 결과 완도 지역 해수 중 유기물(유기탄소)이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탄소 흡수량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완도 해산물의 원소 함유량 분석 결과 갯벌과 암석 영향으로 칼륨 나트륨 아연 함량이 높고, 전복 바지락 채취 지역의 암석과 갯벌에는 칼륨 나트륨 철 아연 등이 함유된 것으로 드러났다.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에는 필수 아미노산이 많이 함유돼 있고, 바지락 꼬막은 철 아연 함량이 전반적으로 높았다고 군은 전했다.

특히 완도 해역 대부분이 정화 작용이 우수한 맥반석으로 형성돼 청정한 바다 환경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해조류 성장에 필수적인 영양염류를 많이 생성해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완도 해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해 소비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영암 농특산물로 고급진 디저트 음식 탄생

청년 창업자 대상 교육

무화과 타르트, 대봉감 만주와 무스케이크, 고구마 티라미수까지….

영암군이 청년 카페 창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특산물 판매를 확대하기 위해 '특산물카페 디저트 교육'에 나섰다.

사전 공고로 선발된 10곳 청년 사장들은 최근 카페 창업 컨설팅 전문업체인 '메종세컨드'의 강사들과 함께 교육에 들어갔다.

무화과·대봉감·고구마 중 1개 품목을 선택해 자신의 업소에서 판매할 대표 메뉴를 개발하는 중이다.

군은 교육이 끝나면 청년 사장들의 가게를 담은 '카페 투어 지도'도 제작할 예정이다.

교육에 참여한 이금천씨는 "디저트 메뉴 교육뿐만 아니라 카페 운영 노하우와 기존 판매 제품 개선방안도 함께 상담할 수 있어 도움이 많이 되는 교육"이라고 말했다.

영암군은 올해 후반기 2차 교육생도 모집한다. 관광객에게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한다는 목표로 음료와 빙수 등 레시피 교육을 준비하고 있다.

영암군이 청년 카페 창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특산물 판매를 확대하기 위해 '특산물카페 디저트 교육'을 하고 있다. 〈영암군 제공〉

영암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마중물 삼아 꾸준하게 제품 개발을 뒷받침해 영암이 미식관광의 메카로 발돋움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목포 청년·미취업자 자격증 취득 지원

'K-디지털플랫폼' 선정 국비 30억 확보…로봇·빅데이터 등 교육

목포시가 4차 산업 관련 청년 구직 능력 향상과 자격증 취득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4차 산업 국가자격증 취득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목포시와 스마트인재개발원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K-디지털플랫폼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30억원을 확보했다. 지역 학생, 청년, 미취업자 등을 위한 스마트인재교육센터를 옛 청호중에 구축하고 인공지능·로봇·빅데이터 관련 산업현장 맞춤형 훈련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국가자격증 취득 지원 사업은 빅데이터, 코딩,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 관련 국가자격증 교육비 중 자기부담분 80%를 지원하는 것으로, 1인당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사업공고일 기준 목포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중 ▲2023년 1월 1일 이후 4차 산업 관련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자다.

지원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하며 목포시청 스마트정보과 방문 접수하거나 이메일을 통해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이번 국가자격증 지원 사업을 통해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에 최적화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목포 청년들의 직업 전문성을 제고해 '청년 스마트도시 목포'의 미래 인재 양성에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

농민 제안 농기센터 사업 공모

해남군, 다음달 14일까지 접수

해남군 농업기술센터가 다음 달 14일까지 내년 시범사업 제안을 받는다. 공모를 통해 제안된 사업은 부서 검토와 심사위원회 검토를 거치면 내년 시범사업으로 선정돼 추진된다.

새로운 소득작목 발굴이나 노동력·생산비 절감, 새 농업기술 등 농업을 발전하고 농업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안이면 된다.

해남지역 농업인이나 작목별 생산자(단체·법인 포함), 관련 분야 공무원이라면 응모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농업기술센터 지도기획팀에 하면 된다.

해남군 관계자는 "내실 있는 시범사업들이 더 많이 발굴되고 투명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지속해서 시범사업 제안 공모제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

목포에 개그쟁이 뜬다

다음달 22일 '개그쇼' 공연

목포에 개그맨들이 떴다.

목포시는 오는 7월 22일 오후 3시와 7시 30분 두 차례 목포문화예술회관에서 '개그쇼-개그쟁이' 기획 공연을 선보인다고 28일 밝혔다.

'개그쇼-개그쟁이'는 KBS 개그콘서트 출신 개그맨들의 개그를 직접 보며 남녀노소 누구나 웃고 즐길 수 있는 공연으로, 관객과 함께 코너를 만들어가는 무대를 마련해 건강한 웃음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날 공연에는 안어벙으로 유명한 개그맨 안상태씨와 탄탄한 코믹연기가 일품인 송영길, 정승환, 박휘순, 김태원, 이성동, 김영희, 김회경, 김자미씨 등이 출연한다.

특히 B-Boy와 컬래버레이션을 진행해 수준높은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시는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향유는 물론 지역 문화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관람 대상은 만 8세 이상이며, 관람료는 R석(1층) 1만원, S석(2층) 5000원으로 지정 좌석제를 시행한다.

20인 이상의 단체 예매의 경우 30%가 할인되고 단체 100인 이상이거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의 경우에는 50% 할인 적용받는다.

티켓 예매는 티켓링크(www.ticketlink.co.kr)에서 또는 목포문화예술회관에서 가능하다.

이번 공연은 '2023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선정에 따라 공연비 일부를 문예진흥기금으로 지원받아 열린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

신안장학재단, 330명에 4억4000만원

낙도 장학생 분야 신설

(재)신안군장학재단이 지역의 미래를 이끌 인재 발굴을 위해 '2023년 상반기 장학생' 330명을 선발해 장학금 4억4000만원을 지급했다.

대상은 우수대학생 137명, 내고장진학 34명, 저소득 장학생 87명, 만학도 18명, 다문화가정 25명, 낙도 장학생 8명, 어가·저소득 자녀 21명 등이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을 반영해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대학 장학생을 전원 선발했다고 재단은 밝혔다.

올해부터는 낙도 장학생 분야를 신설했으며 장학생 요건을 부모, 학생 주민등록기준을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완화했다.

(재)신안군장학재단 이사장인 박우량 신안군수는 "어려운 경제 상황과 대외적 여건으로 학생들이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인재육성 장학금이 자녀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는 학부모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진도 산모·유아 가정방문 의료 서비스

군,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공모 선정…출산·양육 건강관리 등

진도군이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인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에 선정, 임산부와 만 2세 미만 영아에 대한 의료서비스에 나선다.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은 전문교육을 이수한 영유아 건강간호사가 임산부와 만 2세 미만 영아 가정을 방문, 임신·출산 단계의 예방적 건강관리와 양육 지지 등 각 가정에 맞춤형 건강관리 혜택을 제공한다.

진도군 보건소는 확보한 국비 등 6000여만원으로 보건소 등록 임산부 대상 건강평가를 통해 기본방문과 지속방문군으로 분류, 의료 서비스를 실시한다.

기본방문은 출산 후 8주 이내 산모의 영양·운동·수면 등 건강상담과 우울평가와 정서적 지지, 신생아 건강발달 상태 평가를 제공한다.

지속 방문은 우울감이나 스트레스로 임신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출산 전부터 아동이 만 2세가 될 때까지 지속적인 방문 상담, 교육을 실시한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각 가정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모자보건서비스를 제공, 엄마와 아이 모두 건강한 출발을 시작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